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등게스와리**
염소를 분양하다 | 손주희
- 08 **살라맛, 민다나오**
알라원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 최정연
- 11 **쫄리읍쑤어, 캄보디아**
콕크라상 마을의 학교공사 | 박주선

특집기획

- 13 **민다나오와 JTS**
2003년의 학교건축(1) | 편집팀

국내소식

- 18 **애광원 경주 나들이**
아주 특별한 가을 소풍 | 김남순
- 20 **JTS와의 특별한 만남**
마리끌레르, JTS와 함께 진행하는 〈The Man〉 화보집 전시회 열어 | 편집팀
자발적인 기부문화로 어려운 어린이들 모두가 희망 가지는 세상 되기를 | 편집팀

나눔회원소식

- 26 **새나눔회원한마디**
- 27 **활동터 소식**
국내 · 인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28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 명단확인란

인도에 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던 날, '등게스와리 마을 극 빈자들에게 나누어줄 염소를 구입하러 시장에 가는데 함께 가보는 게 어떨겠냐'는 국장님의 제안으로 인도JTS 스텝 라훌지와 운전사 우펜드라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야(GAYA) 시골 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담장너머의 길도 웬지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저는 어디 동절한 채로 함께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염소를 분양하다



염소를 안고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

염소를 분양받게 되면 앞으로 젖도 짜서 먹을 수 있고 새끼도 낳아 장에 팔면 돈도 벌 수 있고, 이들 삶에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 가야(GAYA) 사골장터

운전석 뒤로 염소를 분양받게 될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앉아 멀고 먼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대지의 아름다움에 눈이 끌려 한참을 구경만 하던 저는 문득 조용히 내 옆에 앉아있던 인도분을 조심스레 곁눈질로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새까맣게 탄 피부에 깡마르다 못해 내 팔뚝만큼이나 얇은 다리위로 보이는 쪼글쪼글한 피부, 흔들리는 차 안에서 기울어지지 않으려 여기저기 모퉁이를 꼭 잡은 거친 손가락들, 그리고 까맣고 주름진 얼굴위로 보이는 눈은 그렇게도 맑았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 그 눈을 생각하니 그날 무척이나 설레었나봐요.

물어보고 싶은 말들은 무척이나 많은데 힂디를 할 줄 모르니 만나자마자 '나마스떼'(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만 하고선 내내 이어지던 어색한 침묵을 깨고 쭈뼛쭈뼛 말을 걸었습니다. 머리 속엔 전날 배운 힂디 단어들을 이것저것에서 생각하며 엉터리 힂디로 간단한 것들을

물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염소사러 시장에 가지”

“염소 몇 마리 가져요?”

“두 마리”

하고선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갑자기 얼른 할아버지 두 손 위로 염소를 안겨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마을 극빈자에게 염소 나누어주기

오늘 염소를 받게 될 마을 분들은 인도 동계스 와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구에 속하는 극빈자라고 했습니다. 흠으로 지어진 집에 인도에서 그 흔한 소, 돼지도 없고 작은 닭 한 마리도 없고, 정말이지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라고요. 게다가 나이도 많아서 앞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말 그대로 극빈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올해 염소를 두 마리씩 JTS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계스와리에 도착 후 염소와 함께 집으로 가기 전 활짝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



염소를 분양 받은 후 활짝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

바로 오늘이 염소를 분양 받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염소를 분양받게 되면 앞으로 젖도 짜서 먹을 수 있고 새끼도 낳아 장에 팔면 돈도 벌 수 있고, 이들 삶에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의 설레이는 웃음 속에 저도 괜시리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염소를 사게 될 그 장면이 얼른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스치는 동안 우릴 태운 차는 어느 길 모퉁이에 멈춰섰습니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많은 사람들과 작은 가게들, 오고가는 버스, 여기저기 서는 귀하게 길렀을 소와 염소, 닭을 사고 파는 장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게스와리 마을 주민들과 저, 라홀지, 우펜드라지는 다른 곳을 볼 겨를도 없이 염소장터로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올 때만 해도 설레어하던 동게스와리 주민들은 어느새 진지해진 표정으로 여기저기 염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라홀지와 저도 염소를 보는 마음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건강하고 어린 염소를 구입한다면 더 많은 극빈자들이 염소를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염소를 사는 데만 무려 7시간이 걸렸습니다. 뜨거운 피약벌에 많은 먼지에 힘들만도 한데 라홀지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마을사람들을 배려하며 챙기고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저에겐 또 하나의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주인이 되어서 일하는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시간과 땀을 흘려서 염소를 모두 구입하고 그 자리에서 마을사람들에게 분양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마을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마리의 염소, 희망으로 싹튀우다

그런데 문득 사진촬영을 하다 카메라 속으로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잔했던지요.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떨릴 만큼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환하게 웃는 인도할머니의 얼굴을 처



“누구는 동계스와리는 미래에 희망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미 지금 동계스와리는 희망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음 본지라 저에겐 꽤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웃음은 희망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염소를 받으며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죠?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건강한 염소로 잘 키울 생각들, 조그마한 재산이 생겼으니 얼마나 든든하셨을까요? 인도 땅 저 멀리에서부터 온 후원하신 분들의 소중한 마음 하나 하나가 다시 인도에서 희망으로 싹트는구나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염소를 안고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과 나란히 걸어가며 이분들과 나의 사이가 남이 아닌 듯이 느껴졌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우린 지금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한 가족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뉘엿뉘엿 넘어가는 붉은 노을 사이로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뒷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누구는 동계스와리는 미래에 희망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미 지금 동계스와리는 희망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인도 동계스와리에 희망이 싹트도록 멀리에서도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계스와리의 아침은 참 밝습니다. ✨

글 손주희 | 인도JTS 자원활동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계스리 마을 주민들과 염소들

알라원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리보나 시청 알라원학교에 교사 파견

는 것을 다들 꺼려하기에(리보나 지역 파견 교사 예정자들은 모두 알라원은 안가도 만타부나 깔라수얀 학교에는 파견되길 원했었음) 9월에 수업을 시작했어도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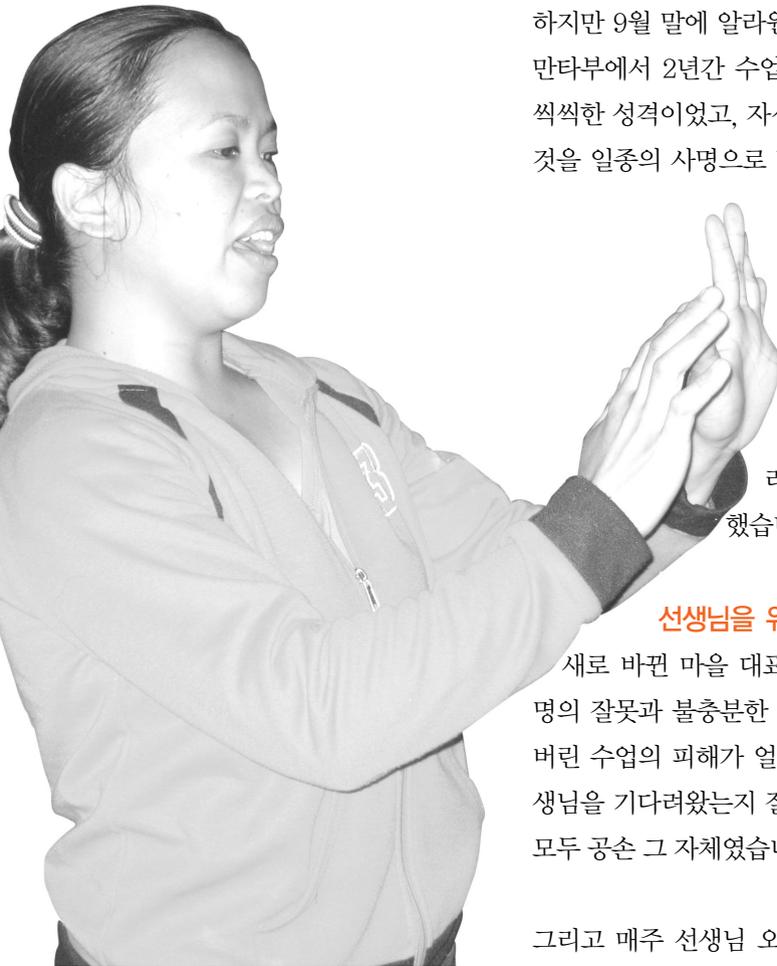
하지만 9월 말에 알라원에 가서 만나본 이 여자선생님은 만타부에서 2년간 수업을 해온 덕분인지 건강한 체격에 씩씩한 성격이었고, 자신이 교육자로서 이런 곳에 일하는 것을 일종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 아이들이 선생님과 편하게 가까이 지냈으며, 선생님도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모두들 숙제를 내주면 다 해오고, 결석하는 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어머니들이 직접 와서 알려주고 하는 점에 아주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개구리 잡아오는 아이들

새로 바뀐 마을 대표와 주민들도 지난 한번의, 단 한 명의 잘못과 불충분한 이해로 잃어버린 선생님, 그 잃어버린 수업의 피해가 얼마나 컸고 또 얼마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려왔는지 잘 알기에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공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생님 오시는 날이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알라원(Alawon)은 필리핀 민다나오 부키드논주에 속해 있는 해발 2,005m 원시림에 위치한 오지이다.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선생님 모시고 땀 뻘뻘 흘리며 올라오는 아이들, 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아침에 올라가서 수업하고 금요일이면 내려오는 선생님, 또 선생님을 위해 개구리를 잡아오고 텃밭의 야채나 고구마를 갖다 주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꼬박꼬박 수업에 참가하는 아이들과 마을 청년들. 모두 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오지 마을 알라원,
그 깊고 멀고 높은 산 속에 빛나는 별과 반딧불들을 친구 삼아 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수업한지 100일이 되는 즈음에 다시 한 번 올라가 알라원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고 와서 그들이 사는 이야기, 또 우리들의 알라원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살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글 최정연 | 민다나오JT



는 것을 다들 꺼려하기에(리보나 지역 파견 교사 예정자들은 모두 알라윈은 안가도 만타 부나 깔라수안 학교에는 파견되길 원했었음) 9월에 수업을 시작했어도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말에 알라윈에 가서 만나본 이 여자선생님은 만타부에서 2년간 수업을 해온 덕분인지 건강한 체격에 씩씩한 성격이었고, 자신이 교육자로서 이런 곳에 일하는 것을 일종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선생님과 편하게 가까이 지냈으며, 선생님도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모두들 숙제를 내주면 다 해오고, 결석하는 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어머니들이 직접 와서 알려주고 하는 점에 아주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개구리 잡아오는 아이들

새로 바뀐 마을 대표와 주민들도 지난 한번의, 단 한 명의 잘못과 불충분한 이해로 잃어버린 선생님, 그 잃어버린 수업의 피해가 얼마나 컸고 또 얼마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려왔는지 잘 알기에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공

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생님 오시는 날이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선생님 모시고 땀 뻘뻘 흘리며 올라오는 아이들, 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아침에 올라가서 수업하고 금요일이면 내려오는 선생님, 또 선생님을 위해 개구리를 잡아오고 텃밭의 야채나 고구마를 갖다 주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꼬박꼬박 수업에 참가하는 아이들과 마을 청년들. 모두 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오지 마을 알라윈, 그 깊고 멀고 높은 산 속에 빛나는 별과 반딧불들을 친구 삼아 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수업한지 100일이 되는 즈음에 다시 한 번 올라가 알라윈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고 와서 그들이 사는 이야기, 또 우리들의 알라윈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살피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글 최정연 | 민다나오JTS



콕크라상 마을의 학교공사

7월말 콕크라상 마을

7월말 콕크라상 마을에서 연락이 왔다. 기술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프놈펜에서 상황파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문제의 발단은 며칠 전 마을 이장님이 연락을 하여 기술자가 주민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거나, 혼자 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를 한 이야기를 들은 기술자가 화가 난 것이 그 이유였다.

9월 다시 공사 시작

우선 현장의 자재관리를 이장님에게 부탁하고, 기술자와 마을 리더분들과 회의 일정을 잡았다. 대표님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현재 공정과정과 작업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주민들과 전체회의를 가졌다.

마을주민들과 3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기술자와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로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조바심도 나고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걱정되는 마음을 달래가면서 진행하게 되어 어렵사리 9월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사가 시작되니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이 가벼운 마음이 들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 마을 리더분들은 솔선수범하여 학교공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써주셨다. ”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마을 리더분들과 원인을 파악하고 회의하고 대책마련 회의를 하면서 제이티에스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새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 리더분들은 솔선수범하여 학교공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써주셨다. 마을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공사를 이어오면서, 그분들은 제이티에스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과정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력하시면서 제이티에스의 원칙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었다.

마을 사정을 파악하고, 형편에 맞추어 함께 가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더 마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마을형편에 맞추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했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과 그런 우리의 부족으로 그동안 힘들었을 마을주민들에게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마을 리더분들이 마을에서의 리더쉽을 잃지 않고, 제이티에스와 신뢰를 바탕으로한 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조심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시 주민들은 학교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캄보디아 추석인 썸썸번이 지나고 바쁜 농사일이 끝나면서 주민들은 예전처럼 학교건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은 함께 공사를 하면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돌아갔다.

지난 9월 22일 캄보디아 제이티에스 실무자들은 콕크라상 마을에서 하룻밤 같이 자고 먹고, 함께 학교 공사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신나게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사람이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언어보다 마음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서툰 캄보디아어로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한마음이 된 귀한 시간이었다.

11월 준공식을 위해 지금은 우리 모두 함께 분주히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이미 새 학년이 시작되었는데도 나무아래 질 마당에서 칠판만 세워놓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애타게 학교의 완공을 기다리고 있어 아주 열심히 학교를 짓고 있다. 🌸

글 박주선 | 캄보디아JTS

민다나오와 J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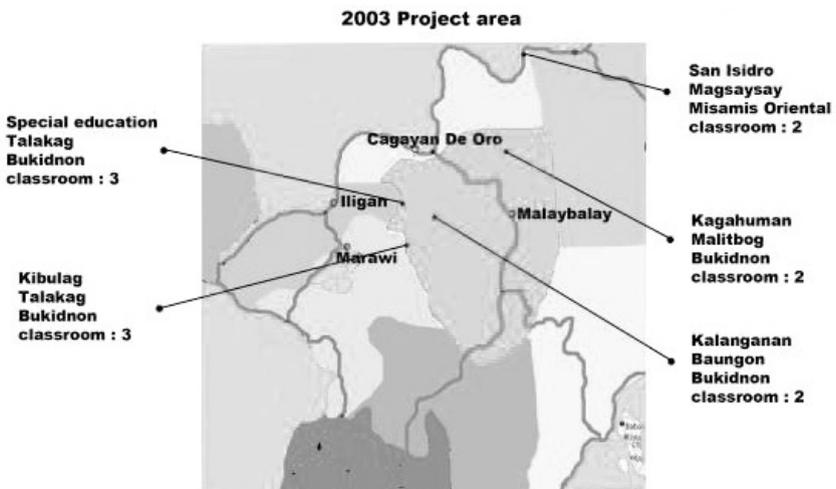
2003년의 학교건축(1)

편집팀

2003년에 시작한 제이티에스의 민다나오 지역 지원은 현지 자원활동가인 도동과 트렐 이 두 사람의 적극적인 역할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호에는 200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마을의 학교 건축 이야기를 읽는다.

갈랑아난(Kalanganan) 초등학교

이 지역은 민다나오 JTS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제이티에스가 민다나오의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곳을 답사했을 때, 이곳 학교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 나무 기둥만 있고 지붕도 벽도 없고 흙바닥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 교실을 짓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자원봉사로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하고 JTS는 그 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여 민다나오섬에서의 첫 학교를 짓게 되었다. 새로 지은 학교건물은 반 콘크리트 건물로 교실이 2칸이며 소변기가 4개 있는 화장실을 갖추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페인트칠도 하였으며 의자도 수리하였다. 이 곳



에 JTS의 지원이 시작된 후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부족한 교실 1칸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교실 완공 이후에는 교사를 파견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가후만 전통문화학교

가가후만(Kagahuman)은 그곳에서 7킬로 떨어진 지역인 임파하농에 살던 30여 가구의 주민들이 기독교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만든 새 마을이다. 전직 고위급 신인민해방군 사령관이기도 했던 추장(다투) 만사이사이안이 마을 지도자이며, 주민들은 그곳을 신성시하여 '가가후만(Place of Power)' 이라고 이름 지었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임파하농 초등학교로 거리가 7km인데, 아이들이 거기로 걸어서 학교 다니기란 거의 불가능해서 먼 거리를 다닐 수 있는 12살은 되어야 1학년에 다닐 수가 있었다.

학교 건축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가가후만이 속한 말리복시에서 도로 사용을 금지시켰다. 과거 신인민해방군 지역 사령관과의 치열한 전투로 많은 희생을 치른 말리복 시장의 사용금지 명령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은 광산이 개발된 곳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광산이 있는 곳에서 마을까지는 10km가 넘는 거리였는데, 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 등 모든 건축 자재를 주민들은 등에 지고 날라야했다. 자신들과 조상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사중인 말리각 특수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다는 부모들의 열의가 얼마나 간절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 학교는 교실이 2개인 목재 건물로 부족을 상징하는 색깔인 빨강, 검정, 노랑,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다. 그리고 멀리 시내에서 온 선생님들을 위해 2칸짜리 교사숙소도 지었다.

키불락 원주민학교

키불락(Kibulag)은 북키드논 주의 팔라각과 라나오텔수르 주의 따골로안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몇몇 무장 세력들이 양쪽 주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양쪽 주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거의 못 받는 지역이다. 키불락은 무슬림과 원주민이 섞여 있는 마을이다. 취학연령대의 어린이들이 200명 정도 되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0퍼센트밖에 안 되었다. 가장 가까운 학교가 1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니기 어렵고,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학교 근처의 친척집으로 이주 와서 다니고 있었다.

JTS에서는 교실 3칸을 짓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공사 기간 중에 무슬림과 원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주민들이 인근 마을로 피난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완성하였으나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다시 무슬림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분쟁이 심해져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이다. 분쟁이 빨리 해결되



팔라각 특수학교의 장애아들

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산이시드로 초등학교

기존 교실 가운데 2칸이 천장이 무너지고 있고 대나무 벽이 썩고 있는 위험한 상태여서 JTS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JTS에서는 건축재료를 지원하였고 주정부와 학교 등에서 나머지 노동력, 기술력, 자재일부를 제공하였다. 특히 주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었으며, 제이티에스가 지원한 것을 계기로 주정부, 마을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학교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로 된 새 교실 2칸과 화장실이 완공되었다.

달라각 특수학교

가가안데오로 시에서 남쪽으로 3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로 50분 정도 걸린다. 이곳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부키드논 주의 유일한 장애인 학교로 JTS가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시각,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아들이 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 수준이 열악했다. 또한 이 학생들은 마을의 이 집 저 집에 나누어 기거하고 있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칼랑아난 초등학교

2003년 9월 2일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과 JTS 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해 9월 8일 탈라각 시에서 특수학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임금의 30%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시에서 교실 3칸에 대한 디자인과 견적을 준비했다. 12월 2일 탈라각의 학부모 연합 회장 레오닐로 알코프라, 시장 아마도 노블 3세, 지역 교육담당자 엘페이오 로마르다와 제이티에스 민다나오 대표 도동, 트렐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합의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침내 2004년 6월 4일 제이티에스 설립자 법륜스님과 제이티에스 필리핀 대표 이원주 부키드논 교육청장이 참가한 가운데 부키드논의 유일한 특수학교 준공식을 하고 장애 아동들의 악기 연주도 있어서 많은 이들이 감동하는 행사가 되었다. 2004년 당시 학생 수는 총 36명으로 청각장애학생 11명(남 7, 여 4), 정신지체학생 11명(남 7, 여 4), 시각장애학생 14명(남 5, 여 9)이었다. ❁



공사중인 키불락 원주민학교

이주 특별한 가을 소풍

애광원 경주 나들이

한국JTS 김남순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애광원 생활인들과의 경주 나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나로서는 처음인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얼떨결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경주 입구 서라벌 광장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약간 마음이 설레었다. 내가 만날 짝은 나의 큰 아들과 동갑인 '장재호'라는 청년이었다. 소개하는 글 내용대로 장애 정도가 가볍고 말수가 적은 편이며 성격도 침착해 보였다. 나랑 공통점이 보여 더욱 호감이 갔다. 버스에서 재호와 나란히 앉아 이동하는 동안, 긴장한 탓인지 처음엔 묻는 말에도 대답이 시원찮았다.

둘이 손을 꼭 잡고 박물관 마당을 돌아보는 동안에 마음이 풀어졌는지 차츰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게 되었다. 작은 체격이었는데도 씨름 선수로 장애인 씨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다 걸어 놓았다고 하여 깜짝 놀랐다. 게다가 상금도 50만원이나 받아 통장에 넣어 두었다며 신나게 자랑하는 것이었다.

애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꽃을 키우고 고추, 상추, 배추, 무 등의 채소들을 키운다고 했다. 로즈마리, 박하 등 허브 식물도 키우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이웃 마을사람들이 와서 사가기도 한다. 대단하다고, 잘 하는 게 많아서 멋지다고 칭찬했다

애광원 경주 나들이

- 10월 19일
- 159명 참석
- 경주박물관, 첨성대, 계림, 불국사 등을 구경했어요.

니 즐거워했다. 점심으로 쌀밥을 먹었는데 짭잘한 젓갈을 넣어 맛있게 먹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침성대를 둘러보고 계림으로 가서 놀이 시간을 가졌다. 풍선을 불어 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넣고 차례로 발표를 했다. 그걸 조별로 길게 이어 풍선기차 릴레이도 하고 노래와 손동작으로 간지럼 태우기도 하며 즐거운 놀이를 하는 동안 친구처럼 모자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가는 듯 했다. 어딜 가나 나랑 손을 꼭 잡고 다녀 내게 믿음을 보여주는 듯하고 엄마가 그립겠다 싶어 마음이 짠했다. 재호씨는 핸드폰으로 범명스님 사진도 찍고 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인들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진행해주는 스님이 자기 마음에 쏙 들었나 보았다. 불국사로 가서 스님의 안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모두들 대체로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이어서 참 대견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호텔 식당에서 저녁 먹는 시간이 되었다. 점심 식사와는 달리 고급스런 분위기에다 된장찌개를 중심으로 소박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재호씨에게는 맛이 없는지 밥 한 그릇을 겨우 비우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무런 불평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과는 달리 나는 얼마나 수많은分別심을 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았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담을 기다리며’ 라는 책을 읽었는데 다운증 후군 아기를 임신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쓴 자전소설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아이야말로 순수한 영혼을 지닌 우리 곁의 천사라며 늘 많은 것을 배우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감사하는 내용이 떠올랐다. 겨우 하루 낮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도 배운 게 있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절실히 느꼈다.

나에게 그 날은, 이미 결혼하여 내 곁을 멀리 떠난 아들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함께 가을소풍을 하는 듯 즐거운 하루였다. 그 소중한 인연에 감사한다.

재호씨, 언제나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간절히 빕니다. ❀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참가자들

마리끌레르, JTS와 함께 진행하는 <The Man> 화보집 전시회 열어

글 편집팀



마리끌레르는 창간 200호를 기념하고, JTS의 아시아 어린이 빈곤 퇴치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된 'The Man' 화보집 전시회가 열렸다.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이번 전시회는 10월 6일, 7일 이틀간 호림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46명의 남성 아이콘을 담은 화보집 'The Man'을 통해 톱스타들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JTS의 홍보대사인 배우 배종옥, 김여진, 노희경 작가와 유명 포토그래퍼와 스타일리스트들 또한 함께 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마리끌레르 웹사이트에서 열린 자선 경매(21개의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서 동참해주셨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JTS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epilogue

all my children_JTS

마리끌레르 200호 기획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국제구호단체인 마리 JTS의 선한 사마리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친구로 함께 있어주셨던 분들이 마리끌레르의 선한 행보를 지원하여 따뜻한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마리끌레르 자신 강제를 통해 판매되었고, The marj을 함께 해 준 미혼 여성 명의 배우 및 유자선과 함께 그 뜻과 수익금을 한국 JTS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JTS는 전세계 어린이 이웃,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의 기아, 질병, 문맹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외의 장벽 내내, 그러나 같은 대륙 안에서 숨쉬고 있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어린 아이들이 하루 한 끼 음식을 먹고, 학교에서 글을 배우고, 뛰어 놀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전달식에서 마리끌레르 편집장인 손기연씨는 “오렌지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매 물품을 기부해주셔서 자선 경매를 할 수 있었고, 경매를 통해 모아진 기금을 아시아 어린이 빈곤퇴치 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경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JTS 홍보 영상을 보면서 배우 배종옥씨는 “아시아의 빈곤은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시회를 관람한 한 시민은 “보통의 기념 파티도 물론 신나고 좋지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 마리끌레르의 창간 200호 기념 전시회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날 전시장 곳곳에 놓인 JTS 저금통을 하나 집에 가지고 왔는데 오늘부터 꼬박꼬박 모아서 다시 JTS에 기부하려고 해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 ✨



자발적인 기부문화로 어려운 어린이들 모두가 희망 가지는 세상되기를

인터뷰 **소프트포럼(주) 회장 김상철**
정리 편집팀

인터넷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소프트포럼은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과 식량을 지원하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저금통제작비로 JTS에 1000만원을 지정기부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고 세계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소프트포럼(주) 회장 김상철 만나보았다.

Establishing Global Trust
SOFTFORUM



“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사회공헌과 **기부의 문화**가
 사회적 책임으로 보편화된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Q 소프트포럼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해주십시오.**

A 소프트포럼은 지난 1995년 인터넷보안 원천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의 파수꾼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보안선도 기업으로서 소프트포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육성 그리고 인재양성을 실현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컨퍼런스인 “CODE GATE (코드게이트)”를 개최, 세계 각국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의 보안행사로 성장시켜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안솔루션 산업분야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에 대한 성과의 결실로, 국내 최고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대한민국신성장경영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국내 대표 보안솔루션 기업으로서 큰 영예를 안았습니다.

소프트포럼은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보안선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북한 등의 어린이에게 교육과 식량을 지원하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저금통 제작비로 지정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부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나요?

A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구



김상철 회장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배우 배종옥씨





“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세요!” 학교모양 저금통이 새로 나왔어요. 상가분양용으로 제작되었어요. 자주가는 가게에 분양해주세요.

촌”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와 인종을 떠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밥 한끼 먹지 못하고, 책 한 권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사회공헌과 기부의 문화가 사회적 책임으로 보편화된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약하지만 저의 기부참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JTS가 실천해 온 기부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다양한 국가에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기부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Q 전세계 65억 인구 중 굶주리는 사람이 12억명 이라고 합니다. 굶주리고,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어린이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한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험겁고 희망조차 없다고 생각할 지라도, 꿈이 있다는 것은 벌써 남들보다 앞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현실을 대하고 임한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기업을 하는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가
 사회에서 받은 몫을 조금이라도 기부를 통해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세상엔 JTS를 비롯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면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절망보다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Q 기타하고 싶은 말씀은.

A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비영리 단체들의 주도적 활동으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기부에 대한 세계 수준은 아직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 戰後 우리의 50~60년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비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바랐고 그 도움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교육을 받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처럼, 지금 이 지구촌에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이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함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을 하는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가 사회에서 받은 몫을 조금이라도 기부를 통해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부문화가 제도적 실천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자발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서 “해피바이러스”로 퍼져나가 어려운 어린이들이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 “커피전문점에 저금통을 놓았어요.”

▼ “편의점에 저금통을 놓았어요”



오늘 첫 만남입니다

정리 JTS 회원팀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후원신청을 하면서 JTS에 바라는 점을 기록한 후원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잘 담아 활동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계사불교대학 학생입니다. 평소 JTS 후원을 하고 있어서 반을 대표해서 글 올립니다. 방학중 특강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봉투를 여신 황정일 교수님께서서는 JTS에 야근반 이름으로 기부할 것을 권해주셨다.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기회로 더 많은 분들이 JTS에 대해 알게 되고 후원자도 늘었으면 하면 바랍니다.

조계사불교대학 53학번
야근반(8/12일시)

비록 큰 도움은 되진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생각만 하다 이렇게라도 북에 있는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꼬마들에게 꼭 제 도움이 전달 되었음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참고로 전 스페인에서 살고 있어요.

정재화(7/2정기)

예쁜 둘째(유수현) 탄생 기념으로 일시후원을 합니다. 둘째 갖기 전부터 이곳에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연인지 여러 어려움에도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영(8/5일시)

한지민씨의 tvn LOVE를 보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지민씨나 다른 자원봉사자들처럼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저의 후원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윤대영(정기8/15)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등 보다 더 위급하고,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곳... 교육도 좋지만, 기아 및 질병문제, 긴급구호에도 더욱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일단 살고 보아야하니깐요! 적지만 찜찜이 돈을 절약해서 몰심양면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지금처럼만 전세계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

성현주(일시8/17)

국내소식



① 가수 소이, 미니콘서트로 JTS 홍보 및 모금 활동 펼쳐

9월 26일 서울숲에서 가수 소이 콘서트가 열렸다. 한 시간 동안 열린 행사에서 소이씨는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의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커피값이라도 아껴서 그들을 도울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냐”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앞으로 활동할 때 JTS와 함께 할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날 모금한 기금은 아시아 어린이들의 학교 급식 비용으로 쓰여질 것이다. 아름다운 노래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소이씨께 감사드린다.



② 남울산 라이온스, 사랑 후원금 전달

울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남울산라이온스 회장 오병국님과 회원들이 오셔서 동아시아 지역의 하루 1달러 미만의 삶을 사는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학교건립에 쓰여지도록 JTS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5년째 후원하고있다. 지역의 봉사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남울산 라이온스 회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③ 함안 산인어린이집, JTS에 사랑의 저금통 전달

지난 여름 함안 산인어린이집에서는 굶주리는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돼지 저금통을 분양받았다. 어린이들은 방학 한달 동안 집으로 가져가서 동전모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엄마,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돈 좀 줘요.”

“엄마, 돼지가 배가 고프니까봐. 동전 좀 넣어줘요.”

“엄마, 유치원에 돼지 갖고 가야 되는데.... 동전이 없어서 어떻게.. 엉엉엉”

방학동안 동전을 모으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한 말들이라고 학부형들이 전했다. 아시아의 친구들을 위해 열성을 보여준 어린이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국내소식



4

4 월계초등학교, 두 번째 돼지저금통 전달식

월계초등학교는 9월 10일 지난 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돼지저금통 전달식을 가졌다. 1,273,121지원의 기금을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월계초등학교 전교생이 여름방학동안 동전모기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황덕주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정성껏 모은 이돈을 아시아 어린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해마다 JTS와 함께 사랑의 동전모기를 실천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5

5 통영 한산대첩축제에서 JTS 캠페인 열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통영 한산대첩축제에서 거제, 통영, 진주, 마산지역의 JTS 자원봉사자들이 3일간 경상대 학생들과 더불어 JTS 홍보 및 아시아의 어린이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거리모금을 하다가 장사에 방해된다고 야단도 맞으면서도 낭랑한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더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희망을 보여준 JTS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3일동안 모금한 기금 168만원은 학교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데 쓰여질 것이다.



6

6 연극패 청년, 연극 공연에 아시아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 모금

연극패청년의 9월 26,27일 근로자공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연극 공연 후 아시아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 모금을 하였다. 연극패 청년의 한 단원은 “언제나 저희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쉽사리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모두들 뿌듯하고 즐거웠다”고 전했다. 모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청년 극단패 여러분과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7

7 문경 가은읍에 추석맞이 라면 전달식 가져

2009년 9월 24일 JTS는 국내 마을 지원사업으로 추석을 맞아 문경 가은읍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될 라면 전달식이 있었다. 읍사무소에서 각 마을 당 인구대비해서 가장 어려운 300가구를 선정, 가구당 1상자씩 지원하였다.



해외소식



① 인도 마을개발 - 마을 쉬람단을 진행하다

동게스와리의 11개 마을에서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걸쳐 마을 유치원 정비와 배수로 및 농수로 정비, 도로 보수 등 마을 쉬람단을 진행하였다.

② 인도 마을개발 - 스위스 베이스에이드 (BASAID) 후원 농업용수 프로젝트 진행

스위스 베이스에이드 (BASAID : 종자회사 '신젠타' 사우회) 단체가 후원한 7,000스위스 프랑 (한화 약 8,056,000원) 규모의 농업용수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동게스와리 지역 '소라즈비가'와 '라홀나가르' 두 마을에 발전기를 포함한 농업용수 펌프 설치를 위해 현재 굴착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③ 인도 지바카병원의 치료활동

9월 10일 40명의 건축부 노동자들이 지바카병원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고, 9월 16일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 여학생들에게 '빈혈'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 한 후, 일주일치 철분을 지급했다. 앞으로 일주일씩 3회에 걸쳐 철분을 추가 투약할 계획이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자타아카데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구충제가 지급되었다.



④ 수자타아카데미의 활동소식

• 유치원구호품 지급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컨테이너가 인도에 잘 도착하여 수자타 아카데미 유치원 상, 하급반 유치원생 600여명과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 800여명에게 소중하게 전달되었다. 상급생들이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옷을 구분하는 쉬람단이 진행되었으며,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들에게는 9월 23일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10월 6,7일 양일간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율동배우기, 감동적인 이야기 영상 프로그램과 함께 구호품 지급이 진행되었다.

해외소식



• 즐거운 소풍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9월 24일 동게스와리 지역을 찾아가는 즐거운 소풍이 있었다. 이 날 행사는 동게스와리 지역을 걸어서 네이란자라 강을 건너서 큰 보리수 밑에서 진행되었으며 축구, 크리켓, 줄넘기등의 놀이와 장기자랑 경연대회, 지역알기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다. 학생들은 강가에서 놀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게스와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사과와 통나따가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되었다.

• 수자타아카데미 간디 기념일

인도의 간디 기념일 행사가 10월 2일 프락보디 홀에서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연설,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비스킷, 통나따와 과일이 제공되었다.

• 수자타아카데미 교사의 날 행사

9월 5일 프락보디 홀에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을 위하여 준비한 행사로 교사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공연과 선물을 준비하여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였다.

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지역 긴급구호

지난 9월 3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지역에 3차례의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한국JTS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10월 9일 JTS대표 박지나님을 서부 수마트라의 주도(主都)인 빠당(Padang)과 최대 피해지인 빠리아만(Pariaman) 지역에 파견하여 1주간 머물면서 주민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JTS는 10월 28일, 최대 피해지 빠리아만 지역을 재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과 텐트, 생필품을 지원하고, 학교어린이들에게는 가방과 문구류 지원을 위해 다시 대표님과 최기진님을 현지에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동참을 위한 후원계좌를 개설하였다.

* 인도네시아 지진참사 긴급구호 후원계좌 :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사)한국제이티에스

⑥ 필리핀 JTS, 태풍 오노이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난 9월 26일 태풍 오노이로 인해 필리핀 마닐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긴급구조대를 구성하여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인 패존바공실랑안 마을을 조사한 마닐라JTS는 10월 1일 긴급구호품을 마리키나 강 주변에 위치한 마을 주민(집과 가재도구를 잃고 한 학교에 임시 수용되어 있던 500가구)에게 캔 식품(쇠고기 2개, 콩치 2개, 참치 2개), 라면 5개, 비스킷 1개, 믹스커피 10개, 물 6리터 한병, 샌드위치 빵 한 줄, 티셔츠 한 개를 한 셋트로 만들어 전달하였다. 물품 가격은 한 셋트에 400페소로 한화로 약 만원 정도이다.

⑦ 필리핀 JTS, 농업기술훈련센터와 교실 건축 진행

민다나오 제이티에스는 현재 농업 기술 훈련 센터 건축과 교실 건축이 한창 진행중이다. 농업기술훈련센터 건축은 현재 1층 슬라브 공사를 끝내고 2층 슬라브 공사 준비 단계에 있다. 10월 말에 2층 슬라브 완공되면 12월께에는 지붕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이 공사과정에는 매달 1~2회씩 마닐라에서 이원주 대표님과 전문 엔지니어 에밀씨가 방문하여 전체 작업공정을 지도해주고 있으며, 현지 엔지니어 네스트르, 작업 반장 미오, 자재 창고 담당에 준준, 자재 구입 및 배달은 리코, 그리고 도동은 전체 인력수급 및 조율 등을 담당하여 모두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한국에서 파견되어 함께 일하고 있는 송현자씨가 재정정리와 자재 파악을 꼼꼼하게 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되게 하고 있다.

아래는 현재 민다나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실 공사들이다. 무나이 판둘루난의 교실 2칸이 지붕 공사중에 있고, 까나안 교실 2칸은 벽 공사 중이고, 파품퐁 교실 2칸이 벽 공사 완료되고, 블루안 교실 2칸의 지붕이 완료되었다. 키다마 교실 2칸과 블루안 교실 2칸의 확장공사가 10월 중에 기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깔랑아난과 오버루킹, 산마테오 학교에 아래와 같이 문구류를 지원하였다.

깔랑아난에는 총 185명에게 공책, 연필, 볼펜, 연습장 각각 4개씩과 가방1개, 우산(여) 우비(여) 지원하였고, 오버루킹에는 총 50명에게 공책, 연필, 볼펜 각각 4개씩, 우비 24개, 우산 26개를 지원하고, 산마테오에는 현재 유치원반이 진행 중인데, 30명에게 가방 1개, 공책 및 연필 4개씩을 지원하였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문의전화 02-587-8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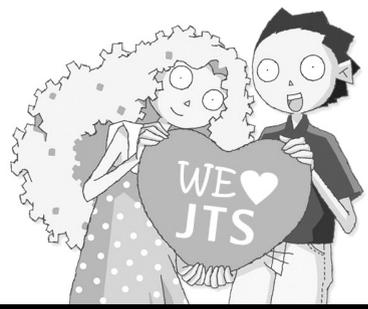
인도 및 제3세계	김진이 P0019053	손성순 P0041224
유정연(유정연) S0041985	김진희 P0042100	손현미 P0042642
66차 일개 S0042616	김철환 P0042859	송숙남 P0042104
강동화 P0042718	김태욱 P0041769	송영연 P0025526
강민정 P0042404	김학익 P0041326	송천호 P0040099
강미혜 P0039682	김향숙 P0004351	수인 P0042176
강민정 P0041861	김현수 P0042509	신상현 P0041987
강수경 P0042403	김현정 P0042664	신현경 P0042640
강영호 P0017472	김현혜 P0042804	삼기현 P0043080
강정호 P0030696	김혜경 P0037481	심상태 P0042678
강지영 P0042462	김희숙 P0041535	심상휘 P0005078
강현은 P0022729	김희영 P0042605	안정심 P0029393
고영실 P0042156	김희정 P0029839	안태현 P0041468
고은하 P0042669	노선주 P0041806	양미연 P0042391
곽경훈 P0042831	노소실 P0016624	양미아 P0043522
곽연정 P0042631	라의형 P0032279	양수연 P0042007
구본현 P0042693	류미 P0042726	양수진 P0043053
구순남 P0027127	류영준 P0009912	양정미 P0042542
권기름 P0041496	류정숙 P0042108	양태영 P0037288
권수정 P0041303	류정우 P0042258	여인숙 P0026342
권용순 P0042175	류수경 P0042427	오성희 P0005269
권정자 P0023382	문생해 P0020073	오희진 P0039123
권혜진 P0037033	문세정 P0033925	유강운 P0042565
김구연 P0042695	문소현 P0033733	유선애 P0041998
김남경 P0042181	문장준 P0032146	유성주 P0042721
김대영 P0042725	문주원 P0041847	유재민 P0033058
김대원 P0041683	민향숙 P0041882	윤광숙 P0014348
김동섭 P0042534	민원순 P0042935	윤시라 P0037370
김동욱 P0014169	민은정 P0042539	윤원숙 P0042933
김동욱 P0041447	민인숙 P0041810	윤정미 P0042457
김광은샘 P0041684	박경수 P0042868	윤정화 P0042691
김미경 P0011838	박경아 P0042546	윤승환 P0030072
김미경 P0042651	박경자 P0042645	이강민 P0016812
김민식 P0041317	박다인 P0041465	이경남 P0041052
김병일 P0042647	박대근 P0041835	이경남 P0042586
김보라 P0041891	박명기 P0011570	이경옥 P0013767
김비야 P0042544	박명애 P0041491	이경원 P0042101
김선옥 P0042454	박미영 P0043056	이경호 P0033289
김선일 P0041420	박범성 P0041616	이경희 P0039871
김수현 P0042412	박상우 P0042720	이근호 P0042429
김양희 P0042086	박재욱 P0043198	이동희 P0042387
김영호 P0043181	박세진 P0041448	이민영 P0041629
김요영 P0014694	박소영 P0041848	이민호 P0042723
김용백 P0042128	박영숙 P0028070	이상식 P0043279
김용수 P0004733	박영운 P0042430	이서현 P0041981
김용우 P0016092	박유진 P0037034	이선영 P0041853
김원주 P0041995	박은정 P0042415	이선영 P0042572
김유신 P0042385	박인숙 P0007620	이선영 P0042672
김윤숙 P0041367	박인아 P0032366	이성민 P0042246
김은기 P0016560	박정은 P0042431	이수연 P0042560
김은숙 P0041694	박재경 P0020128	이영준 P0037335
김정란 P0042632	박중민 P0041992	이윤규 P0042731
김정래 P0042490	박현아 P0041156	이윤석 P0041977
김정미 P0041666	박현영 P0042545	이윤정 P0042727
김준형 P0036852	백연애 P0041445	이은영 P0041874
김지환 P0041865	백호영 P0040353	이재영 P0041628
김지연 P0041945	새마을(새마을) P0043180	이재원 P0042648
김지학 P0031549	서민정 P0041698	이정문 P0042095
김진성 P0042592	서은님 P0041001	이종숙 P0042675

이주홍 P0026819	최연자 P0040510	김동수 P0036035
이준성 P0042668	최용석 P0035767	김동욱 P0014169
이지선 P0038649	최원정 P0042713	김동현 P0034504
이향순 P0042428	최은미 P0042453	김맑은샘 P0041684
이현우 P0042712	최은서 P0042724	김명학 P0031583
이현자 P0042257	최은자 P0041664	김명홍 P0032516
이현주 P0042673	최은주 P0042702	김미경 P0042570
이현형 P0041980	최재연 P0041828	김미라 P0041493
이형원 P0041050	최장근 P0042670	김미정 P0038880
이혜진 P0042416	최정원 P0033116	김민규 P0042370
이혜진 P0043055	최호선 P0030099	김상근 P0042168
이호근 P0042392	태광호 P0038226	김상도 P0042422
이희숙 P0041850	최정희 P0010412	김상철 P0039585
인형식 P0041867	하지민 P0042530	김선일 P0041420
임말순 P0037932	한동윤 P0042576	김선희 P0006050
임민숙 P0030706	한보현 P0041966	김성희 P0039738
임상자 P0041999	한승호 P0040603	김세현 P0042424
임송화 P0041469	한순분 P0042688	김소연 P0041318
임재리 P0042587	한지영 P0042575	김송자 P0020807
정아순 P0039256	한지윤 P0041812	김수현 P0042097
정창배 P0042426	허귀인 P0040603	김영애 P0039782
정영(정영) P0041638	허양희 P0041463	김영화 P0042588
진동표 P0042000	허정화 P0042694	김용백 P0042128
전성용 P0031794	홍가희 P0042870	김용필 P0040868
전은경 P0042390	홍도연 P0041536	김원주 P0041995
전점례 P0042692	홍성명 P0038895	김유라 P0042425
전종연 P0042705	홍은표 P0042395	김유신 P0029417
전진영 P0041662	홍정희 P0041545	김윤숙 P0041367
전향백 P0041467		김은경 P0020962
정란희 P0037247		김은기 P0016560
정보혜 P0042875		김은숙 P0041694

북한어린이돕기

4년제(4년제) S0043330

정복진 P0042663	강경희 P0032384	김은정 P0041334
정성진 P0041675	강경희 P0042550	김은희 P0042582
정석철 P0042409	강기연 P0043085	김이희 P0041894
정은정 P0042525	강동현 P0042151	김재형 P0042103
정지은 P0039745	강동화 P0042718	김정근 P0010101
정현걸 P0042677	강명진 P0042404	김정란 P0042632
정현숙 P0041859	강민정 P0041861	김정민 P0041553
조민아 P0042464	강수경 P0042403	김정인 P0042596
조사슴 P0042006	강영주 P0042671	김종숙 P0042107
조선옥 P0042261	강지영 P0042462	김준형 P0036852
조수민 P0042717	강지윤 P0020219	김지연 P0042617
조은영 P0042566	강지은 P0022729	김지은 P0039590
조은희 P0042099	고영무 P0042397	김진희 P0042100
조정숙 P0039868	고옥연 P0039243	김철형 P0042080
조한철 P0042722	고은하 P0042669	김태형 P0041772
조형자 P0042002	고지영 P0041665	김현진 P0042102
추천옥 P0042567	구창일 P0042943	김향숙 P0004351
지영순 P0042756	권기름 P0042414	김현수 P0042509
지행연 P0036826	권민아 P0041893	김현숙 P0042573
치유선 P0022974	권소영 P0042543	김현채 P0042594
채민숙 P0037294	권정화 P0043078	김혜경 P0002861
창공 P0042541	권지선 P0043065	김홍숙 P0009938
최경화 P0023561	김경미 P0041403	김희정 P0029839
최광규 P0005590	김순진 P0042093	김현채 P0042423
최문경 P0041634	김근아 P0041484	노선주 P0041806
최미경 P0042096	김남수 P0015994	노지원 P0042810
최몽의 P0042719	김도경 P0041446	노수(노수) P0042809
최연식 P0042742	김동수 P0042534	라의형 P0032279



류미	P0042726	윤예주	P0041615	전현수	P0041048
류정목	P0041322	윤정화	P0042691	전형백	P0041467
류정우	P0042258	윤효진	P0037866	정경중	P0038704
류지정	P0041846	이경원	P0042101	정성일	P0041663
문보경	P0010113	이로사	P0042646	정수영	P0030781
민원순	P0042935	이미경	P0041837	정준순	P0042703
민인숙	P0041810	이미영	P0042259	정한결	P0042677
박경숙	P0042413	이보영	P0039461	정현숙	P0041859
박경자	P0042645	이봉자	P0013582	정희아	P0042911
박경진	P0040972	이상원	P0042569	조경미	P0042689
박대근	P0041835	이선영	P0042672	조경미	P0042822
박미영	P0043056	이수연	P0042560	조경숙	P0030596
박미희	P0041488	이수정	P0042860	조사숙	P0042006
박상훈	P0006409	이숙희	P0042106	조상희	P0043061
박서연	P0041330	이연희	P0043020	조은희	P0042099
박성규	P0043262	이영준	P0037335	조찬상	P0030526
박세진	P0041448	이영훈	P0043920	조행자	P0042002
박승수	P0042697	이윤규	P0042731	조현주	P0042398
박영숙	P0028070	이윤정	P0042727	조홍식	P0043040
박옥경	P0035033	이은숙	P0039626	주영진	P0042538
박월윤	P0042430	이은진	P0042590	주찬욱	P0042567
박은정	P0042415	이일종	P0006492	주현경	P0031822
박정미	P0037062	이지순	P0042628	진영숙	P0017042
박정순	P0042349	이재원	P0042648	최공	P0042541
박정원	P0041614	이정숙	P0041347	최경학	P0041544
박정훈	P0035935	이정은	P0042704	최도은	P0040974
박재경	P0020128	이정은	P0042715	최만경	P0041634
박종민	P0041992	이종숙	P0042675	최은주	P0039006
박지영	P0029185	이주홍	P0026819	최봉의	P0042719
박찬희	P0041495	이지선	P0038649	최선희	P0042389
박현영	P0042545	이진아	P0042972	최수희	P0029135
박혜경	P0042978	이창훈	P0034747	최연자	P0040510
방정희	P0039464	이현기	P0041325	최용석	P0035767
백승환	P0041499	이현우	P0042712	최완정	P0042713
부상희	P0041054	이현주	P0042673	최은경	P0037952
서미경	P0039779	이혜정	P0042272	최은서	P0042724
서희영(서희영)	P0043180	이혜진	P0042416	최은선	P0035996
서민정	P0041698	이혜진	P0043055	최은주	P0042702
서은남	P0041001	이호근	P0042392	최인숙	P0027459
선동호	P0041466	이화진	P0042461	최정민	P0033116
손영수	P0043185	이희송	P0041850	최태성	P0020682
손진근	P0006680	임민숙	P0030706	최현규	P0042797
송낙남	P0042104	임보경	P0041633	최호선	P0030099
송재일	P0042537	임선희	P0040859	허지민	P0042530
송찬호	P0040099	임생아	P0041999	한동윤	P0042576
수인	P0042176	임소미	P0037317	한동인	P0041811
신연재	P0042902	임송화	P0041469	한성복	P0042690
신철우	P0042687	임영희	P0011867	한지연	P0042575
신현경	P0042640	임영희	P0042394	한지원	P0019296
심상태	P0042678	임재식	P0037930	허인호	P0038218
심이준	P0021530	임재리	P0042587	홍도은	P0041536
양수진	P0043053	장희	P0041191	홍은표	P0042395
양정미	P0042542	전대석	P0034130	황상민	P0041436
오삼동	P0043038	전동환	P0026027	황선애	P0024188
우효정	P0042676	전신하	P0041176	황정현	P0042580
우경주	P0042432	전연우	P0041175		
유무일	P0042466	전은영	P0041873		
유재윤	P0042026	전정례	P0042692		
유재인	P0033058	전종연	P0042705		
윤미애	P0042270	전지수	P0041174		

북한조건

교회석	P0041984
권종섭	P0042805

김규원	P0042896	이현주	P0042673	양정미	P0042542
김선일	P0041420	이혜진	P0042416	오선주	P0029707
김선정	P0005354	임송화	P0041469	오지하	P0041858
김세령	P0042922	전형백	P0041467	위영경	P0040103
김원현	P0040012	정현숙	P0014752	유재인	P0033058
김윤숙	P0041367	정현숙	P0041859	이건규	P0042411
김은경	P0020962	조경미	P0042822	이경림	P0035633
김은숙	P0041694	조선옥	P0042261	이로사	P0042646
김혜원	P0036810	조은희	P0042099	이미경	P0041837
김희정	P0029839	지현숙	P0042813	이재숙	P0043184
노선주	P0041806	창공	P0042541	이재량	P0041994
라의형	P0032279	최도은	P0040974	이정훈	P0042095
류수현	P0019122	최은경	P0041634	이주홍	P0026819
류정우	P0042258	최봉의	P0042719	이준규	P0042410
박기웅	P0042792	최예진	P0041807	이지연	P0041338
박수현	P0042869	최호선	P0030099	이창훈	P0034747
박유미	P0037846	태경희	P0041490	이태광	P0042801
박진만	P0039221	하은이	P0012499	이혜경	P0040942
손순란	P0040697	홍도연	P0041536	이현우	P0042712
송영수	P0042897			이혜진	P0042416
송영순	P0043043			이혜진	P0042531
안춘옥	P0003647			임보경	P0041633
양정미	P0042542	강동화	P0042718	임송화	P0041469
오송자	P0039545	김지경	P0042540	임영희	P0011867
이성원	P0043333	김정호	P0030696	장승미	P0016480
이순숙	P0042260	김동섭	P0042534	장승혜	P0042811
이진우	P0043042	김미경	P0042570	전선혜	P0019834
이태경	P0043041	김민재	P0042268	전은영	P0041873
이혜진	P0042416	김성완	P0015621	전형백	P0041467
전형백	P0041467	김선일	P0041420	정용식	P0038304
정현숙	P0041859	김성희	P0039738	정한결	P0042677
조경미	P0042822	김영순	P0009775	정현숙	P0014752
최만경	P0041634	김은숙	P0041367	정현숙	P0041859
최태복	P0023498	김은정	P0041334	조선숙	P0042261
홍수이	P0039624	김정란	P0042632	조순자	P0042003
홍영애	P0043257	김지은	P0035950	조은희	P0042099
황정현	P0042580	김현수	P0042509	진영숙	P0017042
		김현정	P0042664	창공	P0042541
		김희정	P0029839	최정민(최정민)	P0042871
		노선주	P0041806	최경학	P0041544
		노학래	P0018742	최도은	P0040974
		류정우	P0042258	최봉의	P0042719
		문재중	P0040138	최예린	P0041808
		김상훈	P0042180	최재귀	P0042522
		김은숙	P0041367	최호선	P0030099
		김은숙	P0041694	하송준	P0042386
		김정란	P0042632	한지연	P0019296
		김희정	P0029839	허준영	P0041895
		노선주	P0041806	홍도연	P0041536
		라의형	P0032279	홍승우	P0041548
		류정우	P0042258	황선애	P0024188
		민양숙	P0041882		
		박미애	P0041321		
		박송혜	P0041637		
		박종하	P0041988		
		신철우	P0042687		
		심상태	P0042678		
		양정미	P0042542		
		이미애	P0039420		
		이송표	P0043010		

인도모자보건

김동화	P0042718
김지경	P0042540
김정호	P0030696
김동섭	P0042534
김미경	P0042570
김민재	P0042268
김성완	P0015621
김선일	P0041420
김성희	P0039738
김영순	P0009775
김은숙	P0041367
김은정	P0041334
김정란	P0042632
김지은	P0035950
김현수	P0042509
김현정	P0042664
김희정	P0029839
노선주	P0041806
노학래	P0018742
류정우	P0042258
문재중	P0040138
민양숙	P0041882
민정숙	P0042393
박범영	P0041627
박정미	P0037062
박정진	P0041892
박정태	P0038250
박지아	P0042699
백양희	P0027828
서희영(서희영)	P0043180
서민정	P0041698
서원애	P0041849
서유정	P0042711
순해진	P0038469
신철우	P0042687
신현경	P0042640
신형철	P0038673
심상태	P0042678

결핵퇴치

강동화	P0042718
고영재	P0042396
곽연정	P0042631
김상훈	P0042180
김은숙	P0041367
김은숙	P0041694
김정란	P0042632
김희정	P0029839
노선주	P0041806
라의형	P0032279
류정우	P0042258
민양숙	P0041882
박미애	P0041321
박송혜	P0041637
박종하	P0041988
신철우	P0042687
심상태	P0042678
양정미	P0042542
이미애	P0039420
이송표	P0043010

특별후원금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인도 및 제3세계

윤문하-김봉식 결혼기념 100,000원	박현순 200,000원	홍수현 첫돌기념 500,000원
66차 일개 1,030,000원	박해숙필리핀민디나오 100,000원	시애틀정토회 \$690
67차 개장일동 1,206,000원	사회보장지부 1,000,000원	신수지 \$390
강연수-오재인 영가 200,000원	서미향연꽃마을 50,000원	한구회 \$100
고애란 우물파기 1,000,000원	서복화 90,000원	이혜정 \$100
구순남 학교짓기 500,000원	산심행 생일축하 100,000원	조수현 \$100
구태완 30,000원	송은호 100,000원	샌프란시스코생명의우물파기 \$1,410
권기수 200,000원	송광수 360,000원	뉴욕 이창용 인도후원 \$2,000
권순자 30,000원	심가현 10,000원	
권정자 30,000원	심호철 2,000,000원	북한어린이 돕기
극락보전 110,000원	양민아 2,000,000원	김기일 100,000원
김경래 25,000원	여인옥 100,000원	김선희 100,000원
김광일 100,000원	연국패청년 680,220원	노재진 생일축하 100,000원
김규남 10,000원	오성희 200,000원	무명 36,000원
김동명 50,000원	유강운 10,000원	백정녀 20,000원
김동진생일축하,가족행복기원 500,000원	윤미라 300,000원	보현문화회관 500,000원
김미정 100,000원	윤슬기 1,000,000원	이미옥 50,000원
김민옥 50,000원	윤승환 100,000원	이세권 30,000원
김봉덕 백중기념 200,000원	이경희 25,000원	이은 북한의료품지원 100,000원
김세호 100,000원	이동기 30,000원	이철(스님) 200,000원
김영호 30,000원	이상학 30,000원	임은상 30,000원
김요기 100,000원	이수호 30,000원	정영규 영가 100,000원
김유신 100,000원	이영수 100,000원	조계사불교대학 53학년 야간반 200,000원
김정란 50,000원	이영주 100,000원	차진희 50,000원
김정란 인도&필리핀지원 100,000원	이윤규 100,000원	채봉희원일동 330,000원
김정래 100,000원	이운희 5,000,000원	햇님참터의익인 50,000원
김정아 100,000원	이정문 300,000원	480차개장도반일동 120,000원
김정운 1,000,000원	임남환등 신서고 3인 400,000원	강세원 48,600원
김진성 50,000원	장세정 30,000원	강지윤 100,000원
김진수 100,000원	장성희 5,000원	고재우 20,000원
김현숙 2,000원	장성용 1,000원	구재성 20,000원
김현혜 100,000원	장성설 31,000원	구창일 1,000,000원
김혜경인도우물파기(3개) 3,000,000원	장은정 10,000원	권정화 300,000원
김홍길필리핀지원 100,000원	장재웅 100,000원	김경태 30,000원
노신설 100,000원	장진희 30,000원	김경여 150,000원
대구우불련후출택시 100,000원	조금옥 30,000원	김규영 20,000원
덕산 300,000원	조민락심 100,000원	김남수 500,000원
마케팅사이트(주) 3,320,760원	조정옥 30,000원	김명숙 어린이에게계를 100,000원
무기명 100,000원	조행자 30,000원	김민규 1,000,000원
무주상 50,000원	진운정 60,000원	김상철 500,000원
문영두-송정순 영가 200,000원	치운실 34,000원	김선태 100,000원
문세정 33,000원	치진희 50,000원	김성남 100,000원
박지윤첫돌기념	채민옥 40,000원	김성애 150,000원
	최경화 600,000원	김정란 50,000원
	최근대 1,000,000원	김지연 5,000원
	최영순 90,000원	김향란 60,000원
	최정원인도&필리핀지원 200,000원	김향임 100,000원
	최진옥, 최민정 120,000원	남유선 500,000원
	하재남아픈어린이를위해서 200,000원	노지원 10,000원
	허귀인 100,000원	
	홍가희 116,500원	

문의전화 02-587-8995

두수(금선사) 200,000원	지원 1,000,000원	이진우 10,000원
류지원 100,000원	권종섭 1,000,000원	이태경 10,000원
명선해양산업(주) 500,000원	김규원 100,000원	임양호영가축원 100,000원
무비즈니스 굿주리는아이들 200,000원	김나영 10,100원	장성호 30,000원
에게양식들... 200,000원	김남수 900,000원	장승이 20,350원
문세정 33,000원	김동선 30,000원	장진영,장수연 60,000원
문송경 200,000원	김미경 100,000원	전병임 4,000원
박경정 30,000원	김민호 100,000원	장진화 100,000원
박경진 1,000,000원	김선정 10,500원	조금연 300,000원
박정미연꽃마을 23,340원	김상애 150,000원	차상연 100,000원
박종하 10,000원	김세령 20,000원	최경혜 50,000원
박혜경 30,000원	김순남-윤송보 영가 1,000,000원	최진명 100,000원
서미향연꽃마을 76,970원	김옥자 103,250원	최태복 20,000원
신연재 88,000원	김원희 20,000원	하은이 60,000원
심미준 300,000원	김일운환갑축하 300,000원	한살림경남 51,800원
오삼동 50,000원	김정운 500,000원	해운대정토회 1,000,000원
유수현 출생기념 100,000원	김혜원생일축하 50,000원	홍사숙 200,000원
유재운 50,000원	김홍민 50,000원	홍수이 50,000원
윤택현 10,000원	노혜숙 100,000원	홍영애 100,000원
윤효진 100,000원	류수현 90,000원	홍창원 150,000원
이동욱영가 극락왕생기원 1,000,000원	민달근 1,000,000원	황준성 40,000원
이수정 10,000원	박기웅수능환격기원 50,000원	황현심 50,000원
이순이 생명의 불유 1,000,000원	박별남북한기아해결 250,000원	결핵퇴치
이영현 800,000원	박수현 5,000원	김정란 50,000원
이윤규 100,100원	박순환 200,000원	박종하 10,000원
이일종 1,000,000원	박유미 10,000원	이미애 30,000원
이지순 50,000원	박정미(연꽃마을) 36,210원	이승표 100,000원
이진아 10,000원	박정순 200,000원	지현숙 10,000원
이종희 20,000원	박종식 50,000원	하은이 20,000원
임송화 50,000원	박진완 400,000원	인도모자보건
임재식 100,000원	박현옥 50,000원	덕성불교학생동문회 286,300
전동환 80,600원	박희순 50,000원	고재우 20,000원
정광자 100,000원	서복화 30,000원	문재웅 200,000원
정숙자 1,000,000원	서애경 500,000원	박정미(연꽃마을) 16,920원
정순덕 20,000원	서창일 100,000원	박종하 10,000원
정순희 300,000원	설상수 50,000원	백양희 1,000,000원
조행자 30,000원	송신옥 45,760원	서미향(연꽃마을) 41,000원
최선호 10,000원	송영수 30,000원	서유정 50,000원
최선희 10,000원	안준옥 50,000원	신향철 100,000원
최순이 50,000원	여인옥 30,000원	이경림 30,000원
최인숙 북한어린이의료품 지원 50,000원	여인옥1만,여송은6만,여송은2만 90,000원	이재숙 100,000원
최정원 100,000원	오만숙 100,000원	이태광 100,000원
허연화 1,000,000원	오택 100,000원	이혜경 50,000원
허인호 30,000원	윤정상 50,000원	이혜경 50,000원
허진호 어린이에게양식을 20,000원	이경민 100,000원	장승현 10,000원
LA정토회김홍식 \$100	이상교 300,000원	조춘희 20,000원
LA정토회 \$820	이상원 200,000원	최경임(연꽃마을) 50,000원
독일정토회 5,320(유료화)	이수연(아들)러영진 50,000원	하승훈 500,000원
	이송화 81,000원	
	이민진 50,000원	
	이준철북한구함 60,000원	
북한재건		
권도경 생일기념 북한식당		

나눔저금통 현황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 광주

비아신협 15,760 여산 26,140 정성우체국 62,060

→ 대구

권보민 29,750 김민석 29,870 김예진 19,740 김혜령 12,460 김현수 23,580 김홍순 27,460 김희숙 12,970 무명3개 50,900 무명 19,970 박순환 13,380 박준영, 박민아 44,020 신영애 24,550 양은정 22,410 윤여영 14,240 이보림 26,930 이상화 27,950 이원백 26,780 이원백2개 49,290 조옥분 31,140 차용백2개 50,880 최민자 32,750 최진연 28,980 충진교회 50,510

→ 대전

권애숙 20,000 김미혜 20,000 김충학 17,000 김태웅 46,920 박정란 18,100 성재훈 16,000 오건우 18,000 임경란 45,270 정봉진 19,000 정중용 10,200 정훈경 14,000 조주호 17,400 최병연 30,000

→ 동래

강명순 45,130 강혜원 26,720 **꽃피는학교 31개 267,400**(강예슬 1,670 구유제 2,920 권도현 2,150 권도형 5,090 김상현 24,550 김준한 8,760 김준호 18,690 김창현 5,350 김치우 8,370 김치우 1,560 김현호 33,890 무명 2,150 무명 3,400 무명 4,410 무명 20,110 무명 5,500 무명 8,400 무명 8,590 무명 2,650 박진수 5,290 박해민 6,670 서수민 9,080 서정주 4,210 성현 1,170 송찬민 12,230 안규도 17,780 은혜 1,190 조민서 20,950 조홍민 8,270 홍유진 8,400 홍정민 3,950 김성근 21,790 김순애 16,890 김현철 147,280 김혜례 19,540 무명 9,290 무명 13,260 무명 7,450 무명 22,950 무명 21,450 무명 700 무명 66,220 무명 52,860 무명 46,500 무명 40,130 박윤희 41,930 박수영 70,040 범문주 111,800 범문주 57,760 북구가정법회 40,410 서동현 13,000 서호성 49,220 손숙연 19,000 심학순 35,190 윤옥희 18,150 윤옥희 28,940 이경미 12,140 이남선 27,220 이만영 96,680 이미혜자 21,310 이민주 8,720 이수남 24,490 정영록 3,830 조정희 69,160 조정희 43,220 조정희 27,310 진숙희 23,350 최경원 15,000 최해란 19,700

→ 마산

강윤규 16,800 김경미(내서주민바자회) 3,000 김세령 19,460 김정희(불대) 14,440 김현숙 26,130 무명 6,100 무명 2,000 박근숙 21,000 **산인어린이집 63개 472,870**(곽채빈 7,740 김동현 8,580 김민재 8,780 김민지 1,010 김보성 5,260 김상민 6,530 김정우 2,110 김채윤 6,620 무명 2,900 무명 19,970 무명 10,070 무명 3,290 무명 4,900 박기양 9,090 박기서 14,500 박도현 6,560 박소윤 5,050 박소현 4,100 박지현 6,480 산생민 41,910 송다빈 4,000 송들반산생민 1,740 신시은 6,710 신재원 5,120 안유민 7,490 양은정 6,220 오민혁 7,030 유재현 5,760 유재훈 5,330 윤미주 2,850 이경민 3,580 이순현 18,650 이시우 2,580 이아정 8,630 이연재 3,620 이인양 6,490 이재한 8,660 이재훈 7,300 이지민 3,910 이하늘 9,900 이하늘 4,930 임혜진 10,250 정민성 4,730 정지웅 3,960 조고는 9,310 조민서 2,570 조수민 9,640 조윤혁 7,120 조재경 4,120 조정숙 26,600 조현 250 조현비 1,600 조현서 1,600 주우영 10,660 차도영 1,950 최영진 26,520 최해민 4,610 허동광 3,960 허유성 1,610 현민성 16,910 한자선 11,980 홍재연 1,440 황수민 5,530 서동찬 24,710 안중재 7,450 엄애숙 6,530 윤슬기 37,250 윤원중 28,150 이경희(함안불대) 90,690 정순이 34,890 정우식 24,050 최한일 21,610 **코오롱사우나 266,440**

→ 서울

66차일개 10개 241,390(김연이 28,610 김민희 6,010 문성해 18,910 박태형 9,090 이웅10,620 이희순 45,900 전소아 34,500 정상산 26,470 정영배 30,880 허난경 30,400) 공동육아호어린이집 15,920 김기범 19,220 김석용 40,800 김윤희 28,110 김정애 62,430 김정희 17,780 김준웅 35,410 김준웅 40,080 김찬영 32,990 김향 29,090 명진스님 28,300 명진스님 32,300 무명 16,660 무명 30,230 무명 19,100 무명 15,540 무명 27,550 무명24,970 무명 7,580 무명 20,940 무명 46,860 무명 36,110 무명 22,420 무명 9,810 무명16,990 무명 12,810 무명 2,450 무명 26,810 무명 28,370 무명 25,650 무명 26,010 무명 2,450 문경무명 9,030 민경례 61,370 민병례 30,410 박경미 32,250 박순은

문의전화 02-587-8995

21,800 박순은 23,010 박순은외친구들 48,730 박수영 26,880 박수지 12,400 박숙정 25,390 박영규10,880 박유진 12,210 박윤서 4,750 박윤하 6,550 박은선 28,700 박정윤 26,780 박태욱24,510 백준영 35,230 백혜원 33,290 북삼농협 8,800 서초1동우체국 16,580 서초1동우체국 25,800 설정경 20,240 성외경 14,030 손영희 34,310 신영기희 23,820 신인균 33,980 신지은 18,570 심유현 22,450 안규원 30,510 안중국 35,370 안효원 28,930 양명숙 15,620 양시원 25,890 오경택 83,500 오세욱 32,590 오장성 21,670 오해주 23,560 오홍자 27,620 우리누리 47,500 윤우사 44,330 이석형 32,070 이선화 21,920 이연수 27,000 이요에 12,200 이원희 15,460 이창민 15,460 임춘영 16,010 장예린 24,110 장정윤 19,960 전선미 45,340 정중숙 25,590 조정숙 46,550 최선희 26,890 최형용 26,980 카페다임 18,510 한일서적 10,180 헤아코디 56,820 흥경미 32,520 활경실 19,230 황종욱21,000 황지인 14,400

→ 울산

건우하우징랜드 12,390 고상희 40,120 고흥출단지심검살아름점 13,050 굿모닝해아삼 25,380 권태은미용실 21,020 김영주 29,250 김일윤 26,400 김혁 2,350 김화정 50,330 김효자 30,110 나이스마트 8,180 나이스마트 7,880 남구축협 23,870 대방나지명촌점 24,790 동광학교 22,620 무명 50,050 바이더웨이산정점 21,440 새아침연하네과 68,320 신정옥 28,360 양지스크린골프 10,000 여천 급자동차정비공업사 25,790 용안새현법29,050 울산숯불길비 15,200 울산정교회 1,390 윤영상 5,230 윤재호 35,750 이근희,건호 14,220 이숙례 12,360 이운성 21,190 정인호 49,500 정주홍 13,720 조동원 24,240 조춘희 10,510 조춘희 21,770 차옥희(김희) 27,650 한양스타어우정점 51,170 후두's스타리아름점 27,830 홍선희 37,390 SBAR 42,450

→ 은평

은평법회 286,900

→ 제천

강금자 14,090 박민주 36,790 범담 13,470 손복자 6,120 이병목 24,000

→ 청주

기홍진 37,220 김동현 43,680 김승현 18,000 김진조(안여) 29,770 나복임 29,350 류인철 33,480 박준자 35,140 윤규에 41,350 이두호 5,430 이순근 107,810 이현주 19,630 정남식 24,600 청주법당 57,000 최홍석 29,910

→ 해운대

강소담 37,440 강해민 61,350 김중숙 22,700 김형용 23,010 라수민외3명 17,400 무명 29,400 박정선 4,420 배정숙 32,550 유지웅 14,900 이경희 59,210 이충원,이명은 20,100 전선주 33,910 전지우 14,420 정중숙 18,430 정진영 52,560 정진희 62,470

→ 독일

김영초 98,02 무명 117 박남순 402 박동진 28 신재숙 70 오석근 69,16 오정순 29,28(단위 유로)

→ LA

김은진 38,20 김춘호 75,20 무명 36,71 박승용 21,08 배영 67,26 수행맛보기보시금 154 이상영 18,43 이은진 30,75 이중 24,97 PARK Rinda 12,40(단위 달러)

| 거리 모금 현황 |

광주 754,010 대구 1,254,594 대전 201,300
 독일민헌 652,710 동래 1,777,980 마산 3,040,190
 서울 1,574,206 울산 289,120 청주 73,600
 포항 112,040 해운대 279,270

명단 확인란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8/5	감사합니다	5,000	9/28	김순실	204,400
8/20	강미란	10,000	8/17	김애숙	10,000
9/21	강미란	10,000	9/15	김애숙	10,000
8/31	강불희	40,000	8/7	김억권	10,000
9/29	강불희	40,000	9/4	김억권	10,000
8/10	강세환	5,000	8/25	김연옥	10,000
8/25	강세환	5,000	9/25	김연옥	10,000
9/28	강세환	5,000	8/10	김영애	10,000
8/31	강영남	50,000	9/10	김영애	10,000
9/30	강영남	50,000	8/10	김예래	10,000
8/18	강호일	25,500	9/15	김예래	10,000
9/21	고수정	20,000	9/15	김예래	10,000
8/12	고인순	10,000	9/2	김원희	10,000
9/10	고인순	10,000	8/10	김유출	30,000
8/25	곽미미	10,000	9/3	김유출	30,000
9/25	곽미미	10,000	8/4	김은상	3,000
8/25	구영미	20,000	8/7	김은상	3,000
8/25	구영미	3,000	8/11	김은상	3,000
9/25	구영미	20,000	8/12	김은상	3,000
9/25	구영미	3,000	8/14	김은상	3,000
9/30	권류경	5,000	9/8	김은상	3,000
8/10	권영경	30,000	9/29	김은상	3,000
9/11	권영경	30,000	9/10	김은하	214,500
8/7	권영미	3,000	8/20	김인식	30,000
8/25	권영미	3,000	9/23	김인자	10,000
9/25	권영미	3,000	9/23	김일우	20,000
8/27	권혁준	10,000	8/25	김재혁	10,000
9/28	권혁준	10,000	9/25	김재혁	10,000
8/24	금필선	10,000	8/17	김점순	20,000
8/31	김갑순	5,000	9/15	김점순	20,000
9/30	김갑순	5,000	8/3	김정미	5,000
9/1	김경락	15,000	9/2	김정미	5,000
9/21	김경우	1,000,000	8/7	김정수	100,000
9/13	김경은	60,000	8/28	김정숙	20,000
8/26	김계남	1,000	9/24	김정숙	20,000
9/28	김계남	1,000	8/17	김정숙	300,000
8/5	김기환	100,000	8/17	김정연	300,000
9/7	김기환	100,000	9/15	김정연	300,000
8/20	김길중	20,000	9/10	김조현	100,000
9/21	김길중	20,000	8/24	김조현	10,000
8/3	김덕화	10,000	8/25	김준심	10,000
9/1	김덕화	10,000	9/25	김준심	10,000
9/15	김록수	40,000	8/24	김태민	30,000
8/24	김명지	30,000	8/20	김현우	20,000
9/23	김명지	30,000	9/10	김현우	20,000
9/25	김명희	50,000	9/15	김혜정	10,000
8/18	김미경	10,000	8/9	김홍수	100,000
9/18	김미경	10,000	8/10	김환홍	30,000
8/25	김미정	10,000	9/1	김환홍	30,000
9/25	김미정	10,000	8/4	김희자	10,000
8/10	김보경	1,000,000	9/4	김희자	10,000
9/11	김보경	1,000,000	9/30	김희자	10,000
9/17	김복진	10,000	8/14	깨장성금	210,000
9/12	김상률,김무성	300,000	8/3	꿈에도소원은통일	10,000
8/31	김선옥	5,000	9/3	꿈에도소원은통일	10,000
8/31	김성은	80,000	8/5	나모니카	10,000
9/30	김성희	10,000	9/7	나모니카	10,000

09년 8월 1일부터 09년 9월 30일까지 은행으로 후원금을 주셨으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연말영수증이 발급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정보가 필요하니 꼭 연락바랍니다.(입금일, 이름, 금액)
문의전화 : 02-587-8995

8/5	남재환	20,000	9/16	배인철	20,000
8/29	남재환	20,000	8/24	배종실	10,000
8/17	남정옥	20,000	9/1	배진	30,000
9/15	남정옥	20,000	8/6	백경희	10,000
8/10	노재성	10,000	9/7	백경희	10,000
9/10	노재성	10,000	8/20	백운재	50,000
8/31	대한불교조계	10,000	9/18	백운재	50,000
9/30	대한불교조계	10,000	9/30	백준영	100,000
8/25	류화연	5,000	9/15	보시	50,000
9/25	류화연	5,000	9/23	복삼농협	8,800
9/25	맹화섭	100,000	8/10	복센	606,000
9/7	무기명	60,000	9/25	북한어린이	200,000
8/3	문운규	50,000	8/17	서묘희	30,000
8/31	문용규	50,000	9/16	서묘희	30,000
8/27	문용섭영가	20,000	8/11	서보원	10,000
8/7	문정원	10,000	9/15	서보원	10,000
8/25	문화경	10,000	8/5	서선영	30,000
9/25	문화경	10,000	8/5	서선영	10,000
8/7	민명숙	100,000	9/7	서선영	10,000
9/15	민병도	30,000	9/7	서선영	30,000
8/20	박광민	50,000	8/26	서성애	30,000
9/22	박광민	50,000	9/17	서유희	1,000,000
8/20	박낙범	5,000	8/25	서은라	10,000
9/21	박낙범	5,000	9/25	서은라	10,000
8/26	박동주	20,000	8/31	서현주	30,000
9/13	박라녕	3,000	9/2	설상일	100,000
9/25	박명희	20,000	8/17	설정숙	200,000
8/20	박미희	10,000	9/17	설정숙	200,000
9/21	박미희	10,000	8/29	성경연	20,000
8/31	박상기	10,000	9/25	성경연	20,000
9/29	박상기	10,000	9/30	손병목	200,000
9/4	박상아	2,000	8/3	손영숙	20,000
8/21	박상희	10,000	9/1	손영숙	20,000
9/21	박상희	10,000	8/5	손윤주	5,000
8/22	박세빈	100,000	9/1	손윤주	10,000
8/31	박선영	10,000	9/29	손윤주	10,000
9/29	박선영	10,000	8/8	송순선	10,000
8/17	박상심	20,000	9/21	송승철후원금	30,000
9/30	박세환	15,000	8/31	송우석	5,000
8/27	박수민박현주	10,000	9/30	송우석	5,000
9/14	박승주	80,000	8/19	송유실	20,000
8/20	박우돈	10,000	9/15	송준영	30,000
9/21	박우돈	10,000	8/17	송현정	5,000
8/31	박정자	5,000	9/15	송현정	5,000
9/30	박정자	5,000	9/5	수고하세요	15,000
9/28	박중동	50,000	8/11	신대훈	200,000
8/25	박지민	5,000	8/11	신미화	10,000
9/25	박지민	5,000	9/11	신미화	10,000
9/29	박태규	42,000	8/3	신비로운여인	20,000
8/20	박해령	10,000	9/1	신비로운여인	20,000
9/21	박해령	10,000	9/10	신상섭	330,000
9/29	박현석	100,000	8/3	신영희	20,000
8/5	박화정	20,000	9/2	신영희	20,000
9/7	박화정	30,000	8/25	신용옥	10,000
8/14	배명숙	60,000	9/25	신용옥	10,000
9/1	배승태	25,000	9/17	신용철	70,000
8/17	배인철	20,000	8/3	신은경	10,000

9/3	신은경	10,000	8/30	이민영	10,000
8/17	신인균	33,980	9/28	이민영	10,000
8/31	신현정	10,000	8/21	이상준	100,000
9/30	신현정	10,000	9/23	이상준	100,000
9/10	심학순	20,000	8/14	이선화	21,920
8/6	아무개	50,000	8/31	이선희	50,000
9/8	아무개	50,000	9/30	이선희	50,000
8/26	안선환	10,000	8/24	이상욱	10,000
9/1	안성삼	150,000	9/22	이상욱	10,000
9/1	안수연	10,000	8/6	이세건	30,000
8/24	안옥승	5,000	9/1	이수경	5,000
9/24	안옥승	5,000	8/25	이수진	5,000
8/25	안혜숙	10,000	8/24	이숙례	1,000,000
8/25	안혜숙	10,000	8/28	이승은	10,000
8/31	안효신	10,000	8/26	이승주	30,000
9/30	안효신	10,000	9/26	이승주바보	28,000
8/31	양나래	10,000	8/21	이안용	10,000
9/30	양나래	10,000	9/21	이안용	10,000
8/26	양재혁	10,000	8/7	이연숙	10,000
8/25	여영주	10,000	9/7	이연숙	10,000
9/22	여영주	10,000	9/7	이영미	10,000
8/20	연미경	5,000	8/25	이영선	10,000
9/21	연미경	5,000	9/25	이영선	10,000
8/10	오경희	5,000	8/25	이영애	10,000
9/10	오경희	5,000	9/25	이영애	10,000
8/11	우경순	50,000	8/25	이은정	30,000
9/22	우경순	48,000	8/25	이은정	10,000
8/24	유강운	10,000	8/3	이은희	20,000
8/6	유광호	15,000	9/1	이은희	20,000
9/7	유광호	15,000	8/17	이인식	10,000
8/20	유상혁	10,000	9/15	이인식	10,000
9/21	유상혁	10,000	8/20	이정옥	10,000
8/24	유숙희	5,000	9/3	이정옥	5,000
8/24	유승현	5,000	9/21	이정옥	10,000
9/30	유영윤	100,000	8/24	이주영	20,000
8/31	유자일	60,000	9/22	이주영	20,000
9/30	유자일	60,000	8/31	이주철	10,000
9/2	유정화	190,000	9/30	이주철	10,000
8/4	윤등현	10,000	9/11	이주형	30,000
9/1	윤미영	10,000	8/20	이재학	10,000
8/20	윤보연	10,000	9/18	이재학	10,000
9/16	윤성희	10,000	8/17	이춘례	30,000
9/5	윤영민	10,000	9/15	이춘례	30,000
9/28	윤영민	400,000	8/25	이현미	10,000
8/27	윤영희	30,000	8/17	이현숙	5,000
8/24	이건형	20,000	9/17	이현숙	5,000
9/28	이경숙	20,000	9/18	이현혜	10,000
8/13	이경애	50,000	8/10	이혜옥	10,000
8/17	이경희	20,000	9/10	이혜옥	10,000
9/15	이경희	20,000	8/12	이혜주	20,000
9/28	이규원	5,000	8/10	이화순	20,000
8/21	이난진	50,000	9/10	이화순	20,000
8/3	이남숙	10,000	8/28	이화자	100,000
9/1	이남숙	10,000	8/20	인도모자567월	150,000
8/25	이남지	20,000	8/21	임은상	30,000
9/25	이남지	20,000	8/31	임은주	20,000
9/18	이미옥	50,000	9/30	임은주	20,000

9/1	임진아	60,000	9/14	조춘희	400,000
8/31	임창숙	20,000	8/5	조해숙	30,000
9/30	임창숙	20,000	9/1	조해숙	30,000
8/21	임채성	20,000	9/1	주경진	30,000
9/18	임채성	20,050	8/26	지중룡	30,000
8/4	장경령	20,000	8/5	진영배	20,000
9/1	장경령	20,000	9/8	진영배	70,000
8/3	장경숙	30,000	9/15	차개장	225,000
8/5	장경숙	200,000	9/30	차상연	50,000
9/3	장경숙	30,000	8/8	채진연	20,000
9/29	장경숙	200,000	9/2	채현주	10,000
9/10	장석화	214,500	9/28	초	30,000
8/31	장성욱	250,000	9/1	최고은	10,000
8/27	장영순	10,000	8/10	최명임	5,000
9/28	장영순	10,000	9/10	최명임	5,000
8/6	장옥주	5,000	9/23	최선희	26,890
9/4	장옥주	5,000	9/1	최소영	15,000
9/1	장철호	10,000	8/25	최순향	30,000
8/14	장향사	20,000	9/25	최순향	30,000
8/3	장현선	20,000	8/28	최영희	20,000
9/1	장현선	20,000	9/28	최영희	20,000
8/18	장현주	27,500	9/1	최윤아	20,000
9/1	전소아	30,000	8/5	최은아	5,000
8/12	전태원	10,000	9/7	최은아	5,000
9/11	전희제	100,000	9/30	최임순	10,000
8/26	정미경	10,000	9/10	최지현	30,000
9/28	정미경	10,000	9/6	최지영	100,000
9/22	정미숙	3,500	9/25	최진실	10,000
9/1	정세홍	10,000	8/31	최태연	200,000
8/31	정순임	30,000	9/30	최태연	100,000
8/3	정연선	5,000	9/30	한나라 농협	5,000
9/1	정연선	5,000	8/19	한대륙	15,000
8/3	정은선	10,000	9/21	한대륙	15,000
9/3	정은선	10,000	8/19	한만석	30,000
9/28	정일선	20,300	9/21	한만석	30,000
8/15	정재은	20,000	8/25	한미경	10,000
9/30	정정숙	5,000	9/25	한미경	10,000
8/31	정진관	50,000	8/20	한석기	10,000
8/19	정평숙	5,000	9/18	한석기	10,000
9/21	정평숙	5,000	9/2	한양순	10,000
8/25	정향란	10,000	9/3	한의규	10,000
9/25	정향란	10,000	9/25	한의규	10,000
8/17	정현아	10,000	8/25	한지예	20,000
9/15	정현아	10,000	9/25	한지예	20,000
9/1	정효은	10,000	9/1	한혜숙	30,000
8/11	조계사불교대학	200,000	8/14	허효선	30,000
8/17	조영순	10,000	9/7	해륜스님	500,000
9/15	조명순	10,000	9/10	홍사숙	200,000
8/26	조서연	30,000	8/3	홍영길	10,000
8/24	조선자	10,000	9/1	홍영길	10,000
8/31	조영순	10,000	9/18	황순옥	50,000
8/24	조영재	700,000	8/9	황의철	20,000
8/17	조은영	100,000	8/18	황지인	14,400
8/31	조은희	20,000	8/6	후원금	50,000
8/24	조인제	10,000	8/18	후원금	10,000
8/6	조진용	20,000	9/18	후원금	10,000
9/13	조진주	50,00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자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간급구호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